쌀값보장, 농촌위한 최소 정책

특 집

추곡수매가 책정과 논의실태

재고쌀, 80년부터 수입한 2천3백만섬 탓

전량 수매 제값 보장의 기본 정책 절실

미국, 호주, 캐나다, EC등 농산물수출국이 중심이 되어 농산물수입 전면개방, 국내 농업보조 지원정책의 폐지 및 국제적 식품 위생안전기준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그동안 각국 농민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비난속에서 미국과 EC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지지부진하였다. 그런데 최근 쌀문제와 관련하여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요컨대 UR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사인 쌀 등 기초식량에 대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수입을 개방하는 쪽으로 협상분위기가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줄곧 우리나라와 함께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개발 등을 이유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의 인정과 주요품목의 시장개방 예외를 주장해온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이 최근 이를 포기할 뜻을 비침으로써 전반적인 협상분위기가 우리나라에 크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지난 9월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UR농산물협상 공식·비공식회의에서 지금까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유럽지역 국가들이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대상 품목에 대해 관세 상당액의 감축과 국내보조정책에 예외적으로 특례가 인정될 경우 시장개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UR농산물협상에서 주요 협상국으로 분류되는 35개국 중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대상품목에 대한 수입개방 불가를 주장하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남게 되었다.

이렇듯 올해 들어와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이 한국과 일본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 노정권의 7월 방미정상회담에서 쌀수입문제는 농업구조조정의 신속한 집행에 대한 미국의 요구로 나타났는데 이는 바로 농산물의 전면 수입개방과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의한 농업의 축소·폐지정책을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쌀수매제도의 폐지를 통한 쌀생산 축소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노정권에게 현재의 정책을 더욱 강력히 실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미작농업의 비중이 낮으면서도 쌀수입개방 압력을 다각도로 펼치는가 살펴보면 미국은 캘리포니아, 미시시피강 델타지역 등 6대 쌀주산지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쌀 재배면적은 1백8만7천정보이고 약 1만1천농가가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5백4만5천톤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농업에서 쌀농사의 비중은 전체농가의 0.5%에 불과하며 전체 농산물 판매액에서 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농업에서 쌀농사의 비중이 작으면서도 정부의 지원은 어느 작목보다 대단히 높다. 실제 미국은 생산된 쌀의 50%를 수출하고 있으며 쌀농장 1호당 정부지원액은 8만2천7백불로 밀농장의 11배, 옥수수농장의 5배, 전체 농장 평균의 8배나 많다.

미국이 가격경쟁력이 다른 곡물보다 약한 쌀임에도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아시아지역에서 쌀을 통해 이들 나라를 정치적·경제적으로 지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렇게 쌀시장 개척에 혈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쌀시장 지배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식량지배의 마지막 고리를 장악하여 정치·경제적 지배의 확고한 발판을 이룩하고자 하는 미국의 지배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노정권은 이러한 미국의 쌀 수입개방압력에 맞서 전국민적인 힘을 모아 물리치기 보다는 89년 4월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발표 이후 농산물수입전면개방의 기조아래 농업해체·농민말살 정책을 노골화하여 탈농화·기업농화를 유도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하나로 작년부터 쌀수매제도의 축소 및 폐지를 노골화해왔다. 경제기획원과 정부 일각에서는 쌀소비 감소를 빙자하여 쌀과잉, 쌀재고, 양곡특별수매적자를 과대선전하면서 쌀수매정책이 비효율적 정책이라 주장하는가 하면 식량안보의 개념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쌀감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맥속에서 작년에는 통일벼 수매가 5%, 일반벼 10%인상에 850만섬의 제한수매안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고, 올해초에는 통일벼 수매가 동결과 일반벼 3~5%인상에 수매량 450만섬을 예상하여 양곡 운용계획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는 몇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쌀과잉은 결코 국내생산의 과잉이 아니라 쌀수입의 결과이다.

90년말 정부 재고미는 1천3백13만석이었고 91년 10월말 정부의 재고미는 1천4백여만석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정부 재고미를 두고 정부는 쌀이 과잉이라 선전하지만 정부 보유 쌀재고의 증가는 80년 4백만섬을 시작으로 84년까지 5년동안 모두 2천3백만섬의 외국쌀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둘째, 쌀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정부의 밀소비 촉진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쌀소비 감소가 자연적 추세이기 때문에 쌀감산이 필연적이라고 한다. 90년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19㎏으로 79년 135㎏에 비하면 16㎏이 감소된 것이다. 반면 밀소비량은 65년도 13㎏에서 90년도에 29㎏으로 16㎏이나 늘었다. 6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분식장려시책의 결과로 89년 한해동안 외국(주로 미국)으로부터 1천6백56만석(쌀생산량의 44%)분량의 밀을 4억3천6백만달러(3천52억원)나 주고 사들여 왔다. 그러나 쌀소비 감소추세는 영세민에 대한 정부보유미의 무상지급과 학교급식의 확대 및 쌀가공 촉진등으로 얼마든지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양곡관리적자는 보관비용 때문이 아니라 이자비용때문이다.

정부의 양곡관리기금의 적자의 누계는 89년말 3조7천2백39억원이다. 그런데 84년부터 정부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세제잉여금을 활용하여 이러한 적자도 총 2조8천9백50억원을 양곡관리기금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실제 양특적자의 누계는 8천3백43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의 양특적자 총액 중 수매자금 이자부담이 1조5천9백8억원으로 전체 41%를 차지하는데 이는 양곡관리를 일반회계를 통하여 실시하면 그 비용은 50%이하로 대폭 축소될 수 있으며 농민이 요구하는 수매가와 전량수매를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바른 양곡수매제도 정립을 위해 정부의 일반회계에 의한 철저한 이중 곡가제의 실시와 밀등 수입양곡에 대한 수입부과금 및 수입이익금 환수를 통한 국내 식량자급도 향상 정책이다.

그동안 피땀흘린 댓가가 수입개방과 저곡가, 제한수매정책으로 인해 농민에게 귀속되지 못하고 무상으로 빼앗겼다. 그결과 저곡가, 저노임에 의한 독점재벌의 이윤극대화와 수입확대에 의한 외국 거대 곡물상의 한국농업 수탈이 심화되었다.

그러므로 농업의 보호 발전과 농민생활과 향상 그리고 국민식생활의 자주화를 위해 쌀에 대한 올바른 정책의 실현이 국민에 대한 농산물 공급권의 농민적 확보라는 관점하에서 식량자급도를 최대한도로 높이는 것이라면 우리 국민의 주요 식량이자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제값보장과 전량수매는 쌀수입 저지의 전제하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의 기본적 내용인 것이다.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제값은 농민이 쌀농사에 투여한 한계생산비를 보장하되 심각한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생산비 및 소득보상 방식에 따라야 하며, 이 속에서 전량을 수매하면 수매값과 시장가격이 거의 일치하는 수준에서 수매량이 결정될 수 있다.

전농은 이러한 전제하에서 91년도 쌀생산비 추정치를 통일벼 80㎏ 2등품 기준으로 11만3천3백46원(작년대비 13.6% 인상), 일반벼 13만6천2백39원(28.1% 인상)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올해 대정부 최소 수매가로 통일벼 10만8천9백45원(10% 인상), 일반벼 13만1천2백19원(24% 인상)을 요구하였다. 이는 도농소득균형 90% 실현을 기준으로 한 쌀값이다.

◇매년 추곡수매가 논쟁이 되풀이 되지만 정부는 항상 저곡가 정책을 취해왔다

그동안 정부의 쌀값억제 정책으로 생산비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부채더미에 시달려 한해에 50여만명의 농민이 도시로 몰려들어 애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된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7백만 농민의 절박한 요구로 정부는 전농이 농민과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전량수매 제값보장에 귀를 기울여 수입개방 저지와 농업·농촌을 살리는 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 의 환
〈전농 총무국장〉

기획좌담

민주정부와의 고리, 상설연합체

상설연합체 결성 준비와 그 의의

정견 차이 극복 대중적 구심 합의

선거계기로 정세 이끌 민주정부 수립해야

장소: 한양대 서대기련 사무실
일시: 1991년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사회자
김철수(전대협 연사국장)
참석자
함종오(전농정책실장)
김현준(전교조연사위원장)
황인성(전민련정책기획실장)

사회자: 92~93년 민주연합정부(이하 민정)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적 구심인 상설연합체에 대한 논의가 아직 대중화되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설연합체 건설의 구체적인 배경과 필요성을 비롯 위상과 전망, 그리고 현재의 고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함종오: 상설연합체(이하 상연)건설 배경과 필요성이라면 지난 5-6월 투쟁의 성과와 한계점 그리고 당면 92-93년 정세의 문제를 들 수 있죠. 87년 6월 투쟁 이후 대중운동의 성장, 전민련, 국민연합등 분열되었다고 보이던 이들의 5,6월 이후 단결된 모습, 민주대연합이냐 야당과의 연합이냐등의 이론상의 문제가 투쟁을 통한 민주대연합 건설의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자연스럽게 풀렸다는 점입니다. 그 속에서 이러한 성과의 계승과 한계극복을 바탕으로 92~93년의 역동적인 정세속에 건설될 민중주도의 민주대연합을 위해 튼튼한 상설연합체가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자: 상연의 논의는 지난 6월 국민연합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뒤 7월 24일 국민연합 대표자회의에서 10개 부분 조직, 13개지역조직으로 '상설연합체 건설추진위원회'를 꾸려 계속적인 토론을 통하여 9월10일 4차회의를 통해 최종공동시안을 작성, 추진위원회활동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건설논의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상연의 성격과 위상에 대하여 이견 또한 분분했죠.

김현준: 사실 상연의 성격을 둘러싼 각 입장차이를 조정해가면서 그 '위상'과 강령합의의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절묘한 절충'이라고나 할까요?

상연이 정치적 대표체인가 대중적 투쟁체인가에서 정치조직 즉, 전략당을 구성하자, 정치지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 단순한 전선체로 모든 힘을 모아내야 한다 등이었죠. 그러나 현시기는 사상적 통일이 단일해야 할 정당활동의 방식보다는 연합하여 대중적인 지도구심을 세워야할 시기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전대협, 전농, 민교협등은 정치적 성향이 강하지만, 분명 대중조직이죠. 이처럼 아직 정치적 지도조직의 존재가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조직의 상설 연합체인 상연은 이후 정치적 방침까지도 내리는 정치적 대표체라 할 수 있지요.

사회자: 서로의 사상과 정견의 차이들을 인정하면서도 92-93년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민족민주운동단체가 위상과 강령에 대해 합의했다면, 상연이 가지는 성격 또한 무척 복합적일 것 같은데요.

황인성: 상연의 성격이라면 87년 이후 크게 성장한 전농, 전교조 등 기층 대중조직이 중심이 되는 투쟁의 구심체라는 것, 선거등 합법정치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정치전술까지 다방면의 전략을 수립 지도할 정치적 대표체라는 점, 그리고 전국과 지역이 통괄적으로 묶여 실제 대정부 투쟁이나 대중의 진출을 전국적인 영역으로 확산시켜나가고 또 견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자: 상연의 전망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연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했던 92-93년의 의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상연의 쟁취 목표와 극복해야할 과제가 구체화될 듯 싶군요.

김: 92-93년은 우리사회의 제반 모순에 관련된 대중의 욕구가 정치적 격돌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오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 세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연합하여 민중주도 민주대연합을 통해 민정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회자: 민주정부 수립은 궁극적인 목표를 떠나 당장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 기층대중이 상연이나 민대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농민문제가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로 돌리는 사람도 없지요. 이의 해결은 폭압정권에 맞설 독자적 한 단체나 한 계열 위주의 독자적 세력화만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농이 혼자서 민주정부를 대변하기는 불가능하고, 어쨌건 힘을 합해야 그만큼 민중의 정치적 진출 또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전노협의장=노동부장관의 형태로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회자: 말하자면 그러한 '민중권력'의 장악을 위하여 여러 형태의 수많은 투쟁을 해왔습니다. 선거투쟁도 그중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를 '민중권력 획득의 길'로 놓을 수는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92-93년이 정권교체기니 재격돌기니 하는 것도 이것들이 민정수립의 투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듯 한데 우리나라에 있어 선거의 의의, 즉 선거의 기능이라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황: 선거의 기능은 부인할 수가 없죠.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은 대중의 각성과 시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래까지 우리국민은 대중 정치활동을 금지당해 왔지요. 이런 폭압적 지배하에서 선거는 그나마 대중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분노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 우리나라 특성상 선거를 무시하는 대중투쟁은 너무 원칙론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투쟁전술을 기본으로 두고 후보전술 또한 병행할 수 있겠죠. 이속에서 92-93년에 건설하고자할 목표의 구체적인 삶을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 그렇습니다. 87년 이전까지는 교육민주화를 요구했으나 지금은 전교조가 그것을 실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즉 주체와 내용을 확보하고 대중에게 알려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교조가 주장하고 나설 때 정권에게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문에서 이러한 '상'들의 결합을 최소한의 민주정부의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선거는 역사적으로 기층민중에게 정치적 관심표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했으며, 운동세력 내부의 원심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거 그자체보다는 선거를 계기로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세를 최대한 주도할 때에 92-93년의 구체적 목표, 즉 민주정부의 상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연의 통일적 단결력을 키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상연이 결합문제의 불확실성때문에 정치사상적으로 분열되어 지금까지는 당면한 정치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수 없었지만 바로 지금이 그 기초를 닦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 각 부문계열 단위에 있어서도 상연에 대한 논의의 수준은 한단계씩 높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전노협의 경우에도 이번 상연 참가에 대하여 즉흥적이 아닌 기층 단위의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총화한 뒤 참여 유무를 밝히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바라본다는 말이 되겠죠.

김: 시, 도등 지역 상연 건설 논의 또한 주체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벌써 광주, 전남에서는 준비위가 구성되었고 부산에서도 곧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군단위의 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죠.

황: 이제는 그간 조직내 단위에서 국한되었던 상연에 대한 배경, 목표등에 관한 논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대중의 이해를 높일 시점이라고 봅니다. 10월말 추진위원회가 건설준비위원회로 전화될 것 같고 11월 내에 상설연합체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이젠 각 소속단체 또는 지역에서의 모범을 타지역에 전파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총화시켜 더욱 더 힘있는 투쟁속에서 상연을 건설해내는 일만 남은 듯 합니다.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文責: 송보영 記者〉

英字 日刊紙 The Korea Herald 直營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외국어특강
개강 ➡11월 1일
독 해
Korea Herald사설, Time, Digest
영문해석등 철저한 분석독해
회 화
Practical English, Side by Side
American Stream-Line
민병철생활영어, 미국인 회화
영작, 어휘력, 청취력
기본영작문연구, Vocabulary 22,000
Movie English TOEFL L/C 및
미국어 Hearing, AFKN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종합영어(입문↔고급)
미국식교과서영어→기초영어완성→영어
실력기초→성문기본영어→성문종합영어
동시통역대학원 입시반
외대동시통역대학원 입학을 위한 1일
4시간 집중코스
일 어
일본인회화/박성원(입문→고급)SCREEN
회화, NHK필름/동경일본어/비즈니스일어
제2외국어, 불, 중, 서반아, 독어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옆 757-0419
코리아헤럴드 외국어학원

시청각 영어회화 과정
◆ 제84기과정 모집 안내 ◆
개 강 : 1991년 11월 1일
교육방법 : American Streamline English와 Most extensive A/V program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 회화과정.
반 편 성 : 개인별 테스트후 수준이 비슷한 수강생들로 한반 12명이내로 반편성.
● 수준테스트는 매일2회 실시합니다 (11 : 30AM, 6 : 30PM)
교육과정 : 1일 2시간 주5일(월~금) 수업, 기초부터 최고급까지 6개 수준 각 8주과정.
강 사 진 : 미국 Harvard 대학출신등 고학력 수준의 전원 Native Speakers.
◆ 수업시간 ◆
7 : 00~8 : 45AM 10 : 00~12 : 00AM
5 : 00~7 : 00PM 6 : 00~8 : 00PM
7 : 00~9 : 00PM 8 : 00~10 : 00PM
● 무역영어 과정
● TOEFL종합반
● 한국말 (Korean Language Courses)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입구 756-7711
코리아헤럴드 어학연수원

SINCE 1961
개원 30 주년
시사영어학원
SISA ENGLISH INSTITUTE
종로2가 종각옆 TEL : 734-2442
영어·일어·독어·노어
아카데미 TOEFL / 로 얄 TOEFL / 이 재 옥 TOEFL / TOEFL GRAMMAR / VOCAB 22000 / 영 어 순 해 / TOEFL L·C / TOEFL 600 / M·A English
미국어 HEARING / 성문종합영어 / 성문기본영어 / TIME·영작문 / 영 어 회 화 (초·중·고급) / 미국인회화 / GRE 2000 / 입사문제해설반
일어문법·독해 (초·중·고급) / 일 어 회 화 / 일본인회화 / 러시아어 / 독 일 어 (초·중·고급) / GMAT 700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급에 열명 안팎의 학생만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켜온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 졸업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면 외면 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격있는 서양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귀어 둘만한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인 곳.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겁지겁 와서 보채지 말고 좀 미리연락하면 순서와 영어 수준에따라 공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잇속 때문에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재단의 연구사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 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120기 수강생모집
● 개 강 : 1991. 11. 1(8주)
● 강 사 진 : NATIVE SPEAKER
● 강의시간 : 1일 75분 주 5일
● 반 편 성 : 8~13명씩 7단계
● 미국·영국 개별 어학연수 상담
재단법인 언어교육 부설 언어교육 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호텔뒤 737-4641(대)

국내 최초의 일본어 전문 Franchise School
제8기 개강 11월 11일 등록접수중!
시사순다이 일본유학집중코스
이제, 일본유학을 위한 일본어, 서울에서 끝내줍니다.
■ 순다이(駿台)란?
일본 TOKYO에 본부를 두고,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23개의 학교를 거느린 일본 최대의 학원그룹으로, 유학생 대상의 일본어 교육으로도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시사순다이는…
• 한국에서는 유일한 유학 일본어 전문학원입니다.
• 「순다이」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순다이」가 사용하는 교재에 따라 강의합니다.
• 「순다이」가 엄선한 일본인 교육전문가 등이 강의를 담당합니다.
• 일본 현지 수강시 년간 수천만원 드는 비용을 서울에서 불과 월 몇십만원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 「순다이」에서 파견한 일본 대학입시 전문가가 서울에서 대학상담 및 면접지도를 해 드립니다.
• 「시사순다이」 수료증은 일본 여러 대학에서 인정받습니다.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1일 2시간/주5일 기초일본어, 일본인회화코스도 있습니다.
일본어 능력시험 J.P.T대비 1일 2시간코스 개설
TEL : (278) 2902~5, 0509
*등록장소 : 종로2가 파고다공원맞은편 시사영어사빌딩 신관4층
(주)시사영어사 직영
시사 순다이일본어학원
종로시사어학학원
*토·일요일에도 전화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